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11월 12일(금) 총 3매			
담당 부서 보건환경연구원	담 당 자 • 토양환경과장 강희규 ☎ 440-5511 • 담당자 김영주 ☎ 440-5513	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골프장 고독성 · 사용금지 농약 불검출!
- 보건환경연구원, 골프장 이용객 보호 위한 농약잔류량 검사 완료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해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결과 고독성, 사용금지 농약이 불검출 됐다고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부터 이용객 보호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개 골프장 내 토양과 연못수에 대해 건기(4~6월)와 우기(7~9월)로 나눠 잔류농약을 조사했다.

최근 5년간 고독성 농약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, 올해도 토양 150건, 연못수 57건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은 전량 검출되지 않았다.

다만 아족시스트로빈 등 저독성 일반농약 9종이 미량으로(토양: 아족시

스트로빈 0.01 ~ 0.87 mg/kg, 연못수: 플루토라닐 0.0005 ~ 0.0096 mg/L)
검출됐으나,

검출된 아족시스트로빈 등 농약성분은 잔디수목의 여름잎마름병, 동전
마름병 등 기타 농작물에도 널리 사용되고, 환경 및 생태계에 독성이
낮으며 분해가 잘 되는 일반 농약들이다.

한편 고독성 농약 3종 검출 시 『물환경보전법』에 따라 1천만원 이하,
사용금지 7종 경우에는 『농약관리법』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
부과된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“고독성 및
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꾸준한 지도점검의 결과이다.”
라며 “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
있도록 골프장 토양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〈붙임〉 골프장 시료 채취 사진

